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월 30일(화)

윤석열 대통령,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대통령,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 인감 전환 등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표준약관 개정, 아이템 소액사기 근절 등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 비대면 진료 제한 해소 위해 법 개정 노력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0, 화)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 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성희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운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